

정부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

원전소재 지역민·시민단체 배제 '반발'

교수 등 15명으로 위원 구성  
1년후 권고안 정부 제출  
"피해주민 배제...결사 반대"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민을 배제한 채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켜 반발이 일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가 원전에서 타오르는 폐연료봉 등 고준위(고농도) 핵폐기물 처리 방안의 틀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원전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과 환경단체는 "30~40년간 원전이라는 국가기간시설이자 위험시설을 안고 살아온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하고 출범시킨 재검토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선릉역 인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재검토위원회는 최현성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등 15인으로 구성했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재검토 위원회는 1년간 의견수렴(공론화)을 거쳐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식,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 등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구체적인 부지까지의 권고안에 담지 않으나, 한빛원전 등 분부별로 마련된 임시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지 여부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대해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동·갈등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되, 남녀비율을 2대 1로 배치하고 세대별로는 30~60대를 모두

포함했다"고 했다. 또한 "국민과 원전소재 주민을 대상으로 폭 넓은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공론조사 과정에서도 참여했던 원전소재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했다.

김용국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원전 지역 주민은 정부 주장과 달리 '이해 관계자'가 아니라 '피해자'다"며 "자칫 재검토위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영광을 비롯한 원전 지역은 '영구 핵폐기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인류가 발명해낸 최악의 위험물

질'이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무려 10만 년간 맹독성 물질을 내뿜는다. 원전을 가동하는 세계 어떤 나라도 제대로 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아직 갖지 못했다.

2015년 경주에 들어선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경우 원전에서 나오는 작업복, 장갑, 폐필터 등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영구 처분(격리)하는 곳으로, 고준위 핵폐기물과는 위험성 자체가 비교되지 않는 수준이다.

한편 송윤모 산자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 원전부지내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겠다는 과거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2016년까지 원전 외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립하기로 지

난 1998년 9월 당시 원자력위원회에서 발표했는데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한빛원전(1~6호기) 대형 수조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은 6302다발(2626t, 2018년 12월 기준)로 2026년께 저장 용량(9017다발·3848t)이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경북 월성원전의 경우 2021년 11월 포화할 것으로 예상돼 '발등의 불'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는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원전지역 주민과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회원들이 29일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원전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참여를 배제한 재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항의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0 달뜨기 02:57  
해질 19:40 달지기 15:24

현 구름 통계

맑은 후 오후부터 구름 많아졌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cities including Gwangju, Seoul, and others.



◇ 바다 날씨

Table showing sea weather conditions for different directions (South, West, East, North) and times (Morning, Afternoon).

◇ 생활지수

Weather index icons and labels: 관심 (Attention), 식중독 (Food poisoning), 매우 높음 (Very high), 자외선 (UV), 보통 (Normal), 미세먼지 (PM2.5).

◇ 물때

Table showing tide times for high and low tide in Gwangju.

◇ 주간 날씨

Table showing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he week of May 31st to June 6th.

교통안전공단, 광주세계수영대회 택시 안전 캠페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7월 시작되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택시 교통안전 특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전남본부는 수영선수권 대회기간 동안 광주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표적인 이동수단인 택시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에서 운행중인 법인택시(3400대)에 특별 제작한 '서고요' 캠페인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서고요'는 '멈춰서, 살피고, 건너요'의 마지막 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횡단보도 통행 위해 우선 멈춰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지 살피고, 안전하게 건너야 한다는 의미다. 또 택시 교통안전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과 단속도 병행한다.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운전자 운전습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택시 회사를 직접 방문해 안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에서 운행중인 법인택시(3400대)에 특별 제작한 '서고요' 캠페인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서고요'는 '멈춰서, 살피고, 건너요'의 마지막 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횡단보도 통행 위해 우선 멈춰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지 살피고, 안전하게 건너야 한다는 의미다. 또 택시 교통안전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과 단속도 병행한다.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운전자 운전습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택시 회사를 직접 방문해 안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동구, '복지장려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

광주 동구는 6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전문장례지도사를 파견하는 '복지장려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동구는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 시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만으로 가구가 구성돼 장례처리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하던 공영 장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에 '저소득층 복지장려서비스 지원

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1개 이상을 보장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 시 무연고자가 아니어도 유족이 신청할 경우 장례지도사를 파견, 장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례지도사를 원하는 경우 유족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대상자 적합여부 확인 후 장례지도사를 현장으로 파견한다. /김용희 기자 kimyh@

광주 남구, 외래어종 퇴치 낚시대회

내달 1일 노대동 근린공원 토종 생태계 위협군으로 분류돼 있다. 민물 유해 어종인 블루길과 큰입 배스 등 외래어종 퇴치와 생태계 및 환경 보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1등부터 3등까지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품도 제공한다. 대회 입상자는 제한 시간 내 블루길과 큰입 배스, 붉은 귀 거북 등 유해 어종과 파충류를 많이 잡은 수에 따라 선정된다. 낚시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31일까지 남구청 6층 환경생태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62-607-3641)로 접수하면 된다. 대회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친환경 미끼와 인조 미끼(루어)만 사용해야 한다. /김용희 기자 kimyh@

내달 1일 노대동 근린공원 토종 생태계 위협군으로 분류돼 있다. 민물 유해 어종인 블루길과 큰입 배스 등 외래어종 퇴치와 생태계 및 환경 보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1등부터 3등까지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품도 제공한다. 대회 입상자는 제한 시간 내 블루길과 큰입 배스, 붉은 귀 거북 등 유해 어종과 파충류를 많이 잡은 수에 따라 선정된다. 낚시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31일까지 남구청 6층 환경생태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62-607-3641)로 접수하면 된다. 대회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친환경 미끼와 인조 미끼(루어)만 사용해야 한다. /김용희 기자 kimyh@

광주 서구 상무중·치평중 통합 재추진

생활 SOC 시설 사업 계획 제안 남는 부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광주 상무중학교와 치평중을 하나로 통합하고, 통합 후 남는 부지에는 진로체험 및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두 학교 통합은 2년 전 무산된 이후 재추진되고 있어 학부모와 동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광주시 서구는 국무조정실의 생활 SOC 시설 복합화 사업 계획 발표 이후 지역주민을 위해 학교 공간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서구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에 선정될 경우 국비 300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과 서구는 해당 시설이 4차 산

업혁명 시대 맞춤형 진로교육을 펼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하고, 생활문화와 공공 도서관 등 기능을 갖춘 진로체험·복합문화센터로 건립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입지는 담 하나를 놓고 붙어 있는 상무중과 치평중을 통합한 뒤, 남는 폐교 부지로 계획하고 있다. 상무중과 치평중 면적은 각각 1만4954㎡, 1만2184㎡ 규모다. 상무중은 1985년 30학급 규모로 건립됐으나 학생수가 감소하며 13학급으로 줄었고, 1991년 개교한 치평중도 24학급에서 15학급만 운영 중이다. 시교육청은 두 학교 통합이 결정되야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학부모와 지역주민 대표, 사구위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의 기구를 별도로 구성해 향후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solar power installation. Text includes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Solar Power Plant Site/Facility High Price Purchase) and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At our company and related business sites, we purchase large quantities of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small (100kW~1,000kW), medium (1,000kW~3,000kW), and large (3,000kW or more)).

Footer information including contact details for N·B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and a nationwide representative number: 1544-1926, 010-7614-1055.